

오기택의 '고향 유정'... 전 재산 기부하고 떠났다

'아빠의 청춘' 해남 출신 가수 오기택 별세...해남고에 장학금

1960년대 서민 꿈과 애환 노래... '고향 무정' 등 수 많은 히트곡 '저음의 마법사' 별명... 전국체전 골프 3관왕 등 '만능 스포츠맨'

1960년대를 풍미한 원로가수 오기택이 23일 오후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해남군 북평면(현 북일면) 월성리에서 태어난 그는 해남중학교를 졸업한 후 외삼촌의 도움으로 상경했다. 성동기계공고를 졸업하고 1961년 KBS 주최 직장인 노래자랑에서 1등을 한 것이 가수의 길을 걷게 된 계기였다.



일본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는 오기택씨.

박성서 대중음악평론가는 "당시 콩쿠르에서 불렀던 노래가 지도교사였던 작곡가 장일성이 대외 출전용으로 만들어 준 '바곡에 운다'였다"며 "아마추어 콩쿠르에서는 관객이나 심사위원에게 친숙한 곡을 부르기 마련인데, 예비가수로서 창작곡으로 출전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창력에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인은 이듬해인 1962년 4월 20일 계약금 5000원을 받고 당시 메이저 음반사였던 신세기과 전속 가수 계약을 맺으면서 가수 활동에 뜻을 올렸다. 그를 스타로 만들어 준 노래는 1963년 취입한 '영등포의 밤'이다. 이 노래는 산업 현장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던 당시 서민의 꿈과 애환이 담긴 노래로, 1966년에는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됐다.

오기택은 1963년 4월 해병대 군예대에 입대했지만, 입대 후에도 그의 노래들은 계속해서 TV와 라디오에서 전파를 탔다. 군 복무 중에도 틈틈이 음반을 취입해 결과적으로는 공백기 없이 히트곡을 계속 내놨다.

그는 제대 후 '고향 무정', '아빠의 청춘', '남산 블루스', '충청도 아줌마', '비 내리는 판문점' 등을 잇달아 히트시키며 1960년대 간판 인기 가수로 등

극했다. 특유의 매력적인 저음으로 노래를 불러 '저음의 마법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오기택은 1979년에는 한국연예협회(현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가수분과위원장을 맡아 가수들의 친목과 권익을 위해 앞장섰다.

고인은 가수 활동 외에도 '만능 스포츠맨'으로 이름을 날렸다.

가수 이력서는 종이 두 장 분량이지만, 골프 이력서는 무려 4장 분량에 별지까지 첨부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골프를 좋아했다.

실제로 그는 1981년부터 3년간 전국체전 전남 대표 골프선수로도 활동해 단체 금메달과 개인 1위 등 3관왕에 오르기도 했다.

고인은 1996년 바다낚시를 갔다가 사고로 크게 다쳐 건강이 악화했다. 이후 지병으로 치료를 받다 최근 중세가 악화해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그의 고향인 해남에서는 2007년부터 매년 '오기택 가요제'가 열리고 있다.

2010년 '영등포의 밤'의 무대인 서울 영등포구에는 이 노래를 기리는 노래비가 세워졌다. 2018년에는 고



오기택(아래쪽)씨가 2014년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오기택 후원 콘서트'에 참가한 가수 설운도 등과 한자리에 모였다.

향인 전남 해남에 '오기택 노래비'도 만들어졌다.

오기택은 2010년 영등포구 노래비 제막식에 휠체어를 타고 참석해 "이 노래는 어려웠지만, 희망이 있던 시절인 1963년 취입했다"며 "긴 세월이 흘러 영등포 중심부에 노래비가 세워져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평생 미혼으로 지낸 고인은 생전 자신의 전 재산을 고향 해남고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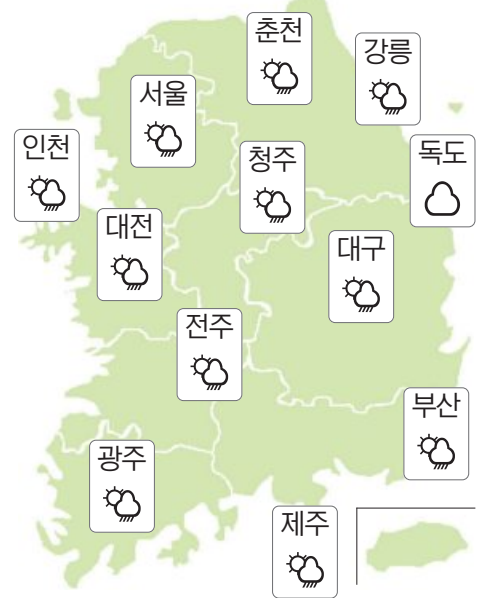
해돋이	06:30	달뜨기	01:32
해질	18:48	달짐	11:10

세찬 비

저기압 영향으로 흐려지다 비 오겠다.

광주	흐려져비	8/19	보성	흐려져비	5/17
목포	흐려져비	9/19	순천	흐려져비	6/17
여수	흐려져비	9/16	영광	흐려져비	6/20
나주	흐려져비	6/19	진도	흐려져비	9/17
완도	흐려져비	10/18	전주	흐려져비	7/20
구례	흐려져비	5/17	군산	흐려져비	5/19
강진	흐려져비	7/18	남원	흐려져비	5/18
해남	흐려져비	6/18	혁신도	흐려져비	8/16
장성	흐려져비	5/19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0.5~1.5	1.5~3.0		
	면바다(북)	1.0~2.5	2.0~4.0		
	면바다(남)	1.0~2.5	2.0~4.0		
남해 서부	앞바다	0.5~1.5	1.5~3.0		
	면바다(서)	1.0~2.5	2.0~4.0		
	면바다(동)	1.0~2.5	2.0~4.0		

◇ 물때

목표		간조	만조
		12:29	07:23
여수	--:--	19:21	
	08:12	01:52	
	20:06	13:54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낮음	보통	보통

◇ 주간 날씨

26(토)	27(일)	28(월)
☁	☁	☁
11/13	5/15	3/15
29(화)	30(수)	31(목)
☁	☁	☁
4/18	8/16	5/14

한상원 다스코 대표이사, 조선대 명예박사 학위

조선대학교가 신재생에너지사업 집중 육성을 통해 지역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한상원(사진) 대표이사에게 최근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한상원 대표이사는 다스코 주식회사를 설립해 전문 경영인으로서 도로 안전 시설물 제조업부터 금속 구조물 제조,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핵심 개발을 통해 광주·전남

을 주도하고 있다. 더불어 모교인 조선대에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발전기금을 기부하고 지역의 다양한 기부문화 조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서구 '동해안 산불' 이재민에 1000만원 성금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최근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등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서구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이번 산불로 실의에 빠진 피해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서구청 직원과 양동동통시장상인회, 동 자생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금을 모았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이재민들의 긴급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이번 산불피해로 큰 실의에 빠진 이재민 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의 온정을 모아 성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피해복구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락 나눔행사



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일봉)가 최근 고독사·결식 우려가 있는 이웃 50세대를 위한 '행복도시락' 나눔행사를 열었다. 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일봉 위원장은 "봄을 맞이하여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돌봄이웃들을 응원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공>

이인용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임명

전남도가 24일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6대 원장에 이인용(59·사진) 전 한전KDN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을 임명했다.

신임 이 원장은 전남대에서 계산통계학을 전공하고 중앙대 대학원에서 전자계산학 석사를 취득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가다. 한전KDN에서 전력IT사업처장과 원전ICT사업처장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한편 출신으로 경영·전략기획과 콘텐츠산업 분야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실무능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겸비한 전문가로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미디어·ICT·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질적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유현석 기자 chadol@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 ▲유재철(전 광주일보 사장)·김연여씨 장남 경석(광주시체육회 대리)군, 천우생·이혜경씨 장녀 유림양=4월 2일(토) 11시50분 광주시 서구 라페스타웨딩홀 2층 열무채홀 062-366-7766.
- ▲정동환·조수인씨 차남 우신군, 김현철(금호고속 대표이사 사장)·최순선씨 장녀 세리양=4월9일(토) 오후 12시30분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 3층 컨벤션홀.

알림

-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고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 상담 1670-9512.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을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강추치의료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 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여,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

- 능력개발원 061-320-7024.
-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 모집=사·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론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녀 모집, 실버제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분부 062-515-7521.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기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